

『宿魂鏡』論*

— 「幻鏡」의 典拠를 中心으로 —

이 중 환**

(e-mail: jhwlee@knu.ac.kr)

<목 차>

序論: 『宿魂鏡』의 개요 및 연구 목적	第四: 「紅樓夢」과의 비교
第一: 透谷의 『八犬伝』受容	第五: 『忌衣物語』, 謡曲 「昭君」과 「富士山」, 『古鏡記』와의 비교
第二: 『八犬伝』의 「幻界」와 『宿魂鏡』의 「幽居」의 類似性	第六: 「東海道四谷怪談」 「国性爺合戦」 等과의 비교
第三: 「伏姬의 鏡像」과 「幻鏡」과의 類似性	結論: 『宿魂鏡』와 透谷 文学 世界

Key words: 北村透谷(kitamura tokoku), 宿魂鏡(the magic mirror with hidden girl's ghost)
八犬伝(Legend of the Eight Samurais named Dog), 幻鏡(the mysterious magic mirror)
幻界·幽居(mysterious fantastic world).

序論 : 『宿魂鏡』의 개요 및 연구 목적

기타무라 도코쿠(北村透谷)의 『숙혼경』(宿魂鏡)은 1893년 1월 「국민의 벗」(國民の友) 제 178호에 발표되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男女 主人公의 애절하고 슬픈 사랑이야기(悲恋物語)이다. 그 題名대로 恨이 어린 魂을 담고 있는 거울이다.

『宿魂鏡』은 <상><하> 2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출신의 청년 야마나 요시조(山名芳三)는 입신출세의 꿈을 안고 上京하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다. 그러던 중 그의 우수한 재능을 눈여겨 보아온 次官 도자와 남작(戸沢 男爵)의 마음에 들어서 그의 저택에서 기숙하게 된다. 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okhyeon Research Fund, 2015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리고 곧이어 남작의 딸 유미코(弓子)와 서로 사랑을 맹세하는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작이 집을 비운 사이 그 夫人(弓子の 계모)으로부터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거절」(斷!)당한다. 芳三은 남작의 집을 떠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芳三과 헤어지게 된 弓子は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必よ必よ、忘れては下されますな)라고 절규한다. 그리고 자신의 魂魄이 깃든 「고경」(古鏡)을 「이별의 정표」(離別の時の形見の品)로 芳三에게 준다. 이 장면에서 <상>은 끝을 맺는다.

<하>는 「환경」(幻鏡)을 배경으로 하여 幻想적인 사랑이야기가 펼쳐진다. 芳三은 都市와 단절된 「유거」(幽居)에서 은둔생활(隱遁生活)을 한다. 언제나 弓子が 건네준 「古鏡」만을 품속에 껴안고 지낸다. 입신출세의 꿈도 내팽개치고 오로지 弓子와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만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弓子の 유령이 「幻鏡」에 나타나서 조화를 부린다. 이것은 다름 아닌 「幻鏡의 조화」(幻鏡の仕業)에서 비롯된 것이다. 놀라서 거울을 집어 벽에 던지자 「기이한 괴물」(異態の怪物)이 나타나 弓子와 같이 움직이며 돌아다닌다. 다시 한 번 거울을 벽에 던지자 돌연 괴물의 모습이 사라지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현상이 일어난다. 어느 날 밤 「幻鏡」속의 弓子が 「幽居」에 살고 있는 芳三을 방문하자 괴물도 벽 위에 나타나 두 사람을 조롱한다. 이윽고 「幻鏡의 조화」로 인해 芳三과 弓子は 거의 같은 時刻에 죽는다. 두 연인의 情死로 <하>는 끝을 맺는다.

이 소설은 두 남녀가 「幻鏡」의 魔力에 의해 다시 만났다가는 같이 죽어 버리는 괴담요소(怪談要素)가 加味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幽居」는 異次元의 세계로 설정되어 있다. 『宿魂鏡』의 예고문(1893년 1월, 「국민의 벗」 제 177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아! 유미코의 모습은 그 속에 나타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은 그 속에 담겨 있다. 詩人은 일찍이 이 幻鏡을 가리켜 盲鏡이라 부르고 死鏡이라 이름 지었다. 그렇지만 인간최고의 애정(人間最高の愛情)이며 최순최결한 사랑(最純最潔の愛)이야말로 바로 이것이다. 宿魂鏡 宿魂鏡 나는 이것을 품고 나서부터 이름(名)도 버리고 욕심(利)도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도 이 목숨도 한 편의 悲觀적인 文字, 처참하고 애달프도록(淒愴) 사람을 슬프게 하는 다시 보기 힘든 大作이다.

『宿魂鏡』의 「幻鏡」은 「古鏡」·「盲鏡」·「死鏡」으로도 불리어진다. 「인간 최고의 애정」·「최순최결한 사랑」 즉 弓子の 애정을 상징한다. 그리고 弓子와 芳三의 애절한 사랑을 이루게 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이와 같은 「幻鏡」의 역할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껏 『宿魂鏡』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발표 당시부터 주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얻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예를 들자면 가쓰모토 세이치로(勝本清一郎)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는 제각기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소설이다. 정말이지 도쿄쿠의 소설답게 개성적이고 틀을 벗어난 색다른 작품」(これは不思議な小説である。如何にも透谷の小説らしい個性的な、風変わりなもの)¹⁾이다. 「(透谷의) 병적인 면이 보이는 작품이다」(その病的な面が窺はれる).²⁾ 그리고 「문장도 졸렬하고 회화도 자연스럽지 못하며 내용도 불가사의하다. 세간의 평은 뭐 그리 쓸데없는 것을 생각했을까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의 비평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文章も拙く、会話もさう上手ではなく、書いてあることも不可思議なことなので、世の中では、何だつまらぬことをと思つたに相違ない。当時の識者の批評もあまり好くは無かつたやうに思ふ).³⁾

이상과 같은 평가는 『宿魂鏡』의 내용이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데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宿魂鏡』이 지니고 있는 괴이함을 푸는 실마리로서, 이 작품의 전거(典拋)의 하나로 여겨지는 透谷의 『팔견전』(八犬伝)의 수용(受容) 문제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그 근거로서 透谷의 『八犬伝』에 대한 언급이 그의 에세이 『처녀의 순결을 논하다』(処女の純潔を論ず, 1892年 10月)에一贯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도야마 산속 동굴」(富山の洞) 즉 異次元의 世界인 「환계」(幻界)가 주 무대로 등장한다. 그 「환계」에서 인간인 후세히메(伏姫)는 犬인 야쓰부사(八房)와 동거 생활을 한다. 이 같은 人獸同居譚이 전개 되는 곳이다. 어느 날 伏姫의 모습이 「고인 물」(止水)에 몸(体)은 사람(人)이며 머리(頭)는 개(犬)인

※ 北村透谷의 著作本文 引用은 勝本清一郎氏가 製作한 『透谷全集』(岩波書店)에 依한다.

그리고 本文의 韓國語 翻譯은 論者에 의해서 이루어 졌음.

『八犬伝』의 本文 引用은 『南総里見八犬伝』小池藤五郎(岩波書店)1985年 発行- 에 의함.

1) 勝本清一郎, 「透谷全集」解題/ 岩波書店.

2) 島崎藤村(1912.10), 「北村透谷の短き一生」, 「文学世界」.

3) 田山花袋(1909.7), 『明治名作解題』, 「小説作法」, 博文館.

반인반수(半人半獸)로 비추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지수의 환영」(止水の面影: 고인 물에 비쳐진 모습)⁴⁾이다. — 이하 이것을 「伏姬의 경상」(伏姬の鏡像: 거울에 비쳐지는 伏姬의 모습)이라고도 부른다. — 바로 이 「伏姬의 경상」이 『宿魂鏡』에 등장하는 「幻鏡」의 典拠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論의 展開는 우선 『宿魂鏡』에 등장하는 「幻鏡」와 그 괴이성(怪異性)이 전개되는 무대인 「幽居」의 세계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두 작품에 공유하는 거울의 조화 즉 「幻鏡」과 「伏姬의 鏡像」 그리고 그 주 무대인 「幽居」와 「富山の 洞」의 세계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토대로 『八犬伝』과 『宿魂鏡』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다.

그 다음 「거울」(鏡)의 조화를 배경으로 하는 전통 문학 작품들과 비교 분석한다. 『紅樓夢』, 『忌衣物語』, 謡曲 「昭君」과 「富士山」, 『古鏡記』, 「東海道四谷怪談」 「国性爺合戦」等. 이 들 작품들은 『宿魂鏡』의 典拠에 유사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들을 『八犬伝』과 비교 분석하여 『宿魂鏡』의 典拠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작가 透谷의 『宿魂鏡』 제작 동기 및 그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第一: 透谷의 『八犬伝』 受容

透谷의 『八犬伝』 受容 내지 영향 관계는 그의 에세이 「処女の 純潔을 論하다」에 잘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富山の 洞에 살고 있는 伏姬의 一例를 觀察」하더라는 副題가 붙어 있다. 여기에 登場하는 伏姬는 江戸時代의 文豪인 滝沢馬琴 (타키자와 바킨)의 讀本 『南総里見八犬伝』(1814-1842: 以下 『八犬伝』으로 略称함)의 作中 人物이다. 그리고 「富山の 洞」은 伏姬가 活躍한 主舞台이다. 따라서 이 副題만 보더라도 이 에세이는 『八犬伝』에 관한 透谷의 批評書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透谷의 주안점이 副題가 시사하듯 「富山の 洞에 살고 있는 伏姬의 一例를 觀察」에 있다. 즉 이것은 「富山の 洞」에서 벌어지는 人獸同居譚이다. 伏姬와 八房가 「富山の 洞」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4) 『견이평판기』(犬夷評判記)에는 「도야마 산속 동굴」 즉 「幻界」에서 생활하는 伏姬의 모습과 그녀가 臨終에 이르는 과정을 도노무라 슈사이의 비평과 그에 대답하는 바킨(馬琴)의 문답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 속에서 바킨은 伏姬의 얼굴이 개(犬)의 모습으로 水面에 비춰져 있는 것을 「지수의 환영」(止水の面影)이라고 말한다.

『八犬伝』의 내용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伏姫(후세히메)가 16歲 되던 가을. 里見(사토미)領에 飢饉이 들었다. 이 위기를 노려서 이웃 나라의 首將인 安西景連(안자이 카게쓰라)가 공격해 왔다. 城이 곧 陷落 될 危機에 처했다. 그녀의 父는 敵將의 머리(首)를 가져오는 者에게 伏姫와 婚姻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한다. 사람이 아닌 里見家에서 키우던 개(犬)인 八房(야쓰부사)가 적장을 살해하는 공적을 올린다. 그리고 約束을 履行할 것을 要求한다. 伏姫는 君主가 約束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父를 説得한다. 이리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고 「父의 義」를 지키려 한다. 결국 八房와 함께 「富山の 洞」에 들어가서 同居生活을 하게 된다.

이러한 人獸同居譚 中에서 透谷가 특히 주목한 것은 『処女の 純潔』 즉 「伏姫의 純潔」이다. 에세이 「処女の 純潔을 論하다」의 첫 머리가 透谷의 心中을 잘 표현하고 있다. 「天地에는 사랑하고 좋아 (愛好)해야 할 것이 많다. 그 中에서도 가장 愛好해야 할 것은 処女の 純潔이다」(天地愛好すべき者多し、而して尤も愛好すべきは処女の純潔なるかな).

処女 崇拜 思想을 주장하는 透谷의 문학 세계의 근간이 『八犬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下 伏姫와 八房의 人獸同居譚의 主 舞台인 「富山の 洞」은 어떠한 세계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伏姫의 純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다. 「処女の 純潔을 論하다」에는 伏姫와 八房의 人獸同居譚이 展開되는 「富山の 洞」의 空間은 다음과 같이 叙述되어 있다.

第二緝 第一卷은 全篇의 大發端이며 實은 「八犬伝」一部의 腦髓이다. 伏姫 안에 因果가 있고 伏姫 안에 業報가 있다. 伏姫 안에 八犬伝이 있다. 伏姫 이야기 끝난 뒤의 諸卷은 俗 世界를 기쁘게 할 俠勇談이 있을 뿐이다.

第二緝の第一卷は全篇の大發端にして其実は八犬伝一部の脳髓なり、伏姫の中に因果あり、伏姫の中に業報あり、伏姫の中に八犬伝あるなり、伏姫の後の諸卷は俗を喜ばすべき俠勇談あるのみ。

낮에는 八房가 산나물과 과일을 따다가 伏姫에게 바쳤다. 그리고 伏姫는 『法華經』의 讀經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伏姫가 벼루(硯)에 사용할 맑은 물을 길으러 괴어 있는 물웅덩이 (「止水」)⁵⁾에 갔다. 水面에 얼굴을

5) 「処女の 純潔을 論하다」에서는 이를 「止水」라고 한다. 그리고 透谷의 에세이 「心池蓮」(1893년 3월)에서는 이를 연못 (「池」)이라고 부르고 있다.

갖다 대었다. 그러자 거기에 비친 얼굴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 개(犬)의 얼굴로 나타났다. 이것은 極히 瞬間的인 事件이었다. 곧 본래의 모습인 자기의 얼굴로 돌아 왔다. 분명히 몸통은 自身の 모습이었지만 머리(頭)는 개(犬)처럼 보였다. 이것이 곧 「止水의 幻影」·「伏姬의 鏡像」이다. 물위에 비친 개의 모습을 보는 瞬間 八房의 氣를 받아서 受胎를 하게 된다. 그리고 伏姬는 八犬子를 낳게 된다. 즉 「伏姬의 純潔」을 훼손시키지 않고 「物類相感」⁶⁾에 의한 受胎의 方式을 敎示한다. 「富山の 洞」은 이렇게 不可思議한 事件이 벌어지는 「幻界」인 것이다.

「止水의 幻影」에 의한 伏姬의 妊娠은 伏姬와 八房 間의 靈的인 結合을 의미한다. 肉體的인 關係는 徹底하게 否定되어있다. 다시 말하자면 馬琴은 「伏姬의 純潔」이 지니고 있는 그 이미지를 조금도 損傷시키지 않고 그 어려운 局面(「難儀の場」)(『犬夷評判記』)을 絶妙하게 克服한 것이다.

이러한 發想을 해낸 馬琴을 透谷는 絶찬하고 있다. 「(止水의 幻影이) 馬琴의 創作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을 馬琴의 功으로 돌리고 싶다(「馬琴の創作にあらずと難ずるものもあれど、余はむしろ此を馬琴の功に帰するものなり」).

第二: 『八犬伝』의 「幻界」와 『宿魂鏡』의 「幽居」의 類似性

『八犬伝』과 『宿魂鏡』에서 제각기 「거울」(鏡)이 괴이성을 보이는 「幻界」와 「幽居」의 세계를 비교 검토해 보겠다.

첫째, 「幻界」와 「幽居」. 兩者는 각각 다음과 같다. 「伏姬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버림받고 이 산으로 들어왔다」(伏姬は世を捨てつ世に捨てられて、この山に入れり).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버림받고 東京에서 지내던 꿈을 되풀이하는 야마나 芳三」(世を捨てつ、世に捨てられて、都の夢をくりかへす山名芳三). 양자 모두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버림 받」(世を捨てつ、世に捨てられた)은 주인공들이 은거(隱居)하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 게다가 은거 장소에 대한 수식어 또한 일치한다.

6) 『八犬傳』 本文 P216.

둘째, 「幻界」는 「구름과 안개가 가득히 끼어있다. 동굴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雲霧深く籠めて、山洞又人力を以て達すべき道なし). 「한줄기의 강은 인계와 환계의 경계이다」(川一条は人界と幻界との隔てなり). 한편 「幽居」는 弓子の 幽靈이 芳三를 찾아오는 곳이다.

밤은 깊어서 강바닥을 흐르는 눈물의 강은 님을 그리는 나를 눈물로써 지새우게 하는구나. 끝내 님은 시라가와와의 관문을 넘어서 저 멀리서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나를 보러 왔습니다

(夜床の底の涙川、末白河の関越えて、遙々と会ひに來ました、顔見に來ました。).

伏姬와 弓자가 각각 지나온 길은 다음과 같다. 「人界」- 「한줄기의 강」(川一条)- 「幻界」, 「東京」- 「눈물의 강」(涙川)- 「幽居」. 따라서 양자 모두 「한줄기의 강」(川一条)과 「눈물의 강」(涙川)을 건너서 「人界」와는 異次元의 空間인 「幻界」와 「幽居」에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세째, 「幻界」와 마찬가지로 「幽居」도 「텅빈 동굴같은 분묘같은」(空洞の如く墳墓の如き) 곳이다. 따라서 양자가 모두 「동굴」(洞)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네째, 伏姬가 읽는 「독경 소리」(讀經の聲)가 들려오는 곳이 「幻界」이다.

그녀와 同居하는 八房은 仏說에서 이야기하는 「범뇌」(凡悩)를 대표한다.

「청정무구」(淸淨無垢)한 伏姬에게 있어서는 畜生の 정욕(情欲)이 언제 폭발하여 자신을 犯할지도 모른다. 자신의 순결은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伏姬는 『法華經』의 독경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八房의 정욕(情欲)을 억제시키고 자신의 純潔을 지킨다. 끝내는 八房을 成仏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伏姬의 독경소리는 아귀축생(餓鬼畜生)의 정욕과 싸워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무기이다. 또한 八房을 성불시키는 매개체(媒介體)로서 작용한다. 그리하여 「伏姬의 純潔」을 근간으로 부처의 자비(慈悲)에 의해 실현되는 伏姬와 八房의 「고상한 연애」(高尚なる戀愛)는 伏姬의 독경소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한편 「幽居」에서 芳三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람 소리 같은 것이」(内よも外よも声らしきもの)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어느 날 그리운 사람의 「소리」(聲)가 들려온다. 기쁨에 넘친 芳三은 다음과 같이 혼자 중얼거린다. 「누구나 누구나 나를 부르는 것은 누구나」(何者ぞ、何者ぞ、我を喚びしは何者

ぞ). 「나는 그리운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다시 한 번 듣고 싶다. 나는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를 부르러 왔다고 생각한다」(我は懐かしと思ふ声を聴きたり、我は其声を再び聴きたしと思ふ、我は其声が我を爰へ招き出でたりと思ふなり).

그 후 「幻鏡의 조화」(幻鏡の仕業)에 의해 弓子の 환영(幻影)이 나타나자 芳三은 광란(狂亂)한다.

이 소리는 弓子. 나를 부르는 것은 그대가 아니냐. 이 소리와 함께 바람은 멈추었다.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사무치도록 그리워한 현실의 弓子
(その声は弓子、我を呼ぶは御身ならずや。と、いふ声と共に風は歇めり、すらすらと障子を聞きて、入り来るもの、これこそ恋に、恋に、恋い焦がれし現実の弓子).

芳三가 弓子の 환영(幻影)을 현실의 弓子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弓子에 대한 기억을 그녀의 「소리」(声)에 의해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幻界」에서 일어나는 八房와 伏姬의 「고상한 연애」(高尚なる戀愛), 그리고 「幽居」에서 보여주는 芳三의 弓子에 대한 사랑과 두 사람의 만남은, 어느 쪽이든지 그 묘사가 伏姬와 弓子の 「소리」(声)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同一性を 내포하고 있다.

넷째. 「幽居」에서는 弓子の 환영과 「벽위의 괴물」(壁上の怪物)이 한바탕 怪異性を 보이고는 곧 사라져 버린다.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遠吠の犬の声かすかに聞えぬ). 「정신이 미쳐버린 사람이 묵고 있는 별실 주위를 밤새도록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던 개 한 마리가 희끄무레해진 하늘을 쳐다보고는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듯이 슬프게 울부 짖는다」(昨夜ひとよ彼の痴狂の人の別室の周囲を逍遙ひ居し一匹の迷犬のみは、白み行く空に向ひて、事ありげに悲しく鳴く).

이와 같이 弓子の 환영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개(犬)만이 그 사연을 알고 있는 듯 슬프게 짖고 있다. 이것은 마치 「幻界」에서 伏姬를 연모하는 八房의 모습을 연상(連想)시킨다. 따라서 「幽居」와 「幻界」모두 개(犬)가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다섯째. 「幻界」와 「幽居」는 모두 주인공들이 거의 같은 시각에 情死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八房가 총에 맞아 죽자 伏姬 또한 절복(切腹)한다.

以上과 같은 「幻界」와 「幽居」의 類似性으로 미루어 보아 『宿魂鏡』의 「幽

居」의 세계는 『八犬伝』의 「幻界」의 세계의 영향 하에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第三: 「伏姬의 鏡像」과 「幻鏡」와의 類似性

다음으로 「宿魂鏡」에 있어서 「幻鏡」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또 『八犬伝』에 등장하는 「도야마의 동굴」(富山の洞) 즉 「幻界」속에서 伏姬의 모습이 半人半獸의 모습으로 나타난 「伏姬의 鏡像」(「止水의 幻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이 두 「거울」의 세계가 어떤 유사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비교해 봄으로써 양자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두 작품에서 「거울」이 가지고 있는 영력(靈力)이 共有하는 기능은 보는 것(見るもの)과 비추어지는 모습(鏡像: 見られるもの)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伏姬의 얼굴이 八房의 모습으로 변한다. 한편 芳三가 「거울」을 보면 弓子の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제 각기 상대방의 모습이 「거울」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거울의 영력은 본래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다. 「의중에 두고 있는 사람」(意中の人)의 모습으로 變化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울에 비춰진 伏姬의 모습은 그녀가 임신(妊娠)했다는 징후(徵候)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임신은 八房의 자식을 낳기 보다는 전생의 인연으로 가득 찬 「숙인의 만조」(宿因の満潮)를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弓子로부터 받은 「幻鏡」도 주인공의 최후를 예감한다. 또 弓子の 幽靈은 「幻鏡」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서 芳三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리하여 두 개의 「거울」(鏡)은 時間의 壁을 넘어서 過去 狀況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未來 狀況도 予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의 거울 속에 숨겨진 영력이 보여주는 기능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거울」로 상징되는 戀愛觀과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二元的 世界觀이다. 또 거울의 조화로 인하여 주인공이 情死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들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두 작품의 「거울」에 상징되는 것은 「고상한 연애」(高尚なる戀愛)와 「정신주의적 연애관」(精神主義的 戀愛觀)이다.

둘째. 「伏姬의 鏡像」은 伏姬의 「범뇌의 꿈」(凡惱の夢)을 말한다. 「마음이

현혹」(心の惑)되었을 때 생기는 伏姬의 「환영」(幻影:まぼろし)이다. 이것은 「순간」(吐嗟)적으로 생긴 것이다. 곧 伏姬가 「본심」(本心. 良心)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마음속에는 한 점의 티끌도 존재하지 않는다」(一物の存するなし).

『八犬伝』에는 伏姬의 마음이 현혹(迷惑)될 때 「伏姬의 鏡像」이 생겨나게 된다. 透谷는 이 「번뇌의 꿈」(凡悩の夢)과 「마음의 미혹」(心の迷惑)을 伏姬의 「凡悩」로 인식하고 있다.

『宿魂鏡』의 「幽居」에서 芳三는 弓子を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여기에서 芳三는 弓子を 생각하는 것이 「번뇌」(煩惱)라고 말하고 있다. 이 「煩惱」는 「幻鏡의 조화」를 통해 弓子和 만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결국 두 작품에 있어서 「경상」(鏡像)은 어느 쪽도 다 보는 사람(見る人)의 「凡悩」·「煩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실현시켜 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점에서 兩者는 일치하고 있다. 결국 두 작품에 있어서 「鏡像」이 생겨난 배경에 관해서는 한 쪽에서는 伏姬의 「凡悩」가, 다른 한쪽에서는 芳三의 「煩惱」가 제각기 그 원인이 된다. 이 같이 兩 作品에 있어서 거울의 조화는 보는 사람의 번뇌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세히메의 경상」에는 伏姬와 八房가 각기 상징하는 「선계」(仙界)·「마계」(魔界)라고 하는 二元的世界가 형성되어 있다. 「表面」은 「仏界」이며 「裡面」은 「魔界」이다. 또 逆으로 「表面」이 「魔界」이면 「裡面」은 「仏界」가 된다. 「仏」인가 아니면 「魔」인가. 혹은 「魔」인가 그렇지 않으면 「仏」인가 하는 점이다.

이 같은 二元的世界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게 뒤섞여 어느 것을 어느 것이라고 정하기 어렵게」(一なるが如く他なるが如く、紛乱錯綜いづれをいづれと定め難) 되어있다. 이와 같은 二極的 発想은 「처녀의 순결을 논하다」의 머리말에도 암시되어 있다. 즉 伏姬의 이미지는 「만약 인생을 오탁예염(汚濁穢染: 더럽고 흐리게 물들여짐)한 흙이라 한다면, 처녀의 순결은 신불에게 올리는 등불(灯明)이 어두운 감옥(暗牢)으로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비해 八房는 「인생의 오탁예염」(汚濁穢染)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伏姬의 이미지와는 對極의 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幽居」에서 芳三는 「幻鏡」에 비취진 弓子の 환영을 「현실의 유미

코」(現實の弓子)로 착란(錯亂)한다. 그리고 「환영의 극은 실, 실의 극은 환영」(幻の極は実, 実の極は幻)이라 하면서 「광란」(狂亂)한다.

결국 「幽居」에서 芳三가 착란 상태에서 본 「환영」(幻)과 「실」(実)이라는 양극구조는 「환경의 조화」(「幻鏡の仕業」)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것은 「幻界」에서 「후세히메의 경상」(伏姫の鏡像)에 생긴 양극구조와 유사성을 보인다.

第四: 『紅樓夢』 과의 비교

以上과 같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宿魂鏡』의 제작 및 그 典拠의 一端은 『八犬伝』의 영향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논자의 견해에 근거해서 선행 연구자들의 견해와 비교 검토해 보겠다.

『宿魂鏡』의 전거에 관한 일반적 견해는 사사부치 도모이치(笹淵友一) 씨의 지적으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다. 笹淵 氏は『宿魂鏡』에 나타나는 「幻鏡」의 조화는 『홍루몽』(紅樓夢)으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⁷⁾ 요컨대 笹淵氏의 지적은 『宿魂鏡』이 「홍루몽의 일절」로부터 소재를 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다. 「백표·여학잡지. 321호」(白表·女学雑誌. 三二一号. 1892년 6월)에는 「홍루몽의 일절—풍월보감의 사」(紅樓夢の一節—風月宝鑑の辞)가 실려져 있다.⁸⁾ 이것은 『紅樓夢』 제12회 「王照鳳毒設相思局. 賈天祥王照風月鑑」(왕희봉은 모질게도 상사계를 꾸며내고 가천상은 부질없이 풍월감을 비쳐보다) 조(条)를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이 抄訳 한 것이다. 즉 透谷가 어찌면 이 藤村의 초역을 읽고 그때부터 『宿魂鏡』에 대한 발상의 일단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다.

본래 透谷의 문장에는 『紅樓夢』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透谷가 『紅樓夢』을 읽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홍루몽의 일절」에 대한 藤村의 초역을 보면 그 속에는 『宿魂鏡』과 닮은 곳이 몇 군데 있다. 따라서 「홍루몽의 일절」에 관한 내용을 「거울」을 중심

7) 笹淵友一(1955.5) —透谷の「宿魂鏡」について—. 文學..

8) 紅樓夢 第十二回 「王照鳳毒設相思局. 賈天祥王照風月鑑」條에 대한 島崎藤村의 초역 내용은 以下, 『島崎藤村全集』(筑摩書房)에 의함.

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藤村의 「홍루몽의 일절」의 번안은 원문과 다른 곳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원문과의 비교는 생략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치정(痴情) 때문에 병사(病死)한 고단(賈端)이라고 하는 인물을 빌려, 그(渠)가 색즉시공(色卽其是空)인 선기(禪機)를 깨닫지 못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일절(一節)이다. 고단(賈端)은 본래 치한(痴漢)이며 게다가 성격 또한 비뚤어지고 편벽(邪僻)한 자였다. 그가 봉저(鳳姐)라는 계집에게 빠져버려 끝내는 농락당하여 죽게 되는 것을 그린 것이다.

これは痴情の為に病死する賈端なる人物を借りて、渠が色卽是空なる禪機を悟り得ざりしことを叙せる一節。賈端もと一痴漢にして而も邪僻あるに鳳姐なる女に弄ばれ、その弄ばれるを知らずして遂に痴情の為に死せるを写したり。

여기에 시사된 바와 같이 이 소설은 봉저(鳳姐)라는 미인(美人)과 불륜을 저지르고 마침내 그녀에게 농락당하여 끝내 죽어가는 고단(賈端)이라는 청년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단은 봉저에게 농락당한다. 그러나 봉저를 그리워한 나머지 상사병(相思病)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간다. 바로 그때 절름발이 도사가 병을 고쳐주려고 「풍월보감」(風月宝鑑)이란 네 글자가 새겨진 거울(鏡)을 건네준다. 고단이 거울을 받고 뒤쪽을 비추어보니 한 개의 해골(髑髏)이 그 뒤에 서 있다. 「절대로 그 거울의 정면을 보지마」(決してその鏡の正面を御覧するな)라. 이 같이 당부하는 道士의 말을 무시하고 고단은 거울의 정면을 뒤집는다. 그러자 봉저가 나타나 손짓하면서 부른다. 봉저의 손짓에 유혹되어 「무심코 거울 안에 들어가 봉저와 만나」고 「봉저 또한 그를 보내고 밖으로 나온」다. 이리하여 둘은 거울 안에 자유롭게 넘나든다.

이와 같은 둘의 만남은 서너 번이나 반복된다. 그러하던 중에 「두 사람은 물론 그 누구도 모르는 者が 달려와서는 쇠사슬로 그를 묶고, 그 거울을 빼앗아 달아난」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단은 죽어버린다. 그리하여 遺族이 그 「요정」(妖鏡)을 불태우려고 하자 道士가 나타나 거울을 낚아채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 이것으로 이 소설은 끝난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루몽의 일절」에 있어서 거울(鏡)의 괴이(怪

異)를 중심으로 하는 구상(構想)이 『宿魂鏡』의 구상과 얼핏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골」(髑髏)·「호사난사」(胡思亂思: 매우 엉클어져 어수선하게 생각함)라고 하는 글자도 『宿魂鏡』의 문장 중에서 그대로 엿볼 수 있다. 그래서 『宿魂鏡』이 「홍루몽의 일절」로부터 암시를 얻은 것이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宿魂鏡』이 「정신주의적 연애관」(精神主義的戀愛觀)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홍루몽의 일절」은 연애 부정(戀愛否定) 내지는 연애 허망상(戀愛虛妄想)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그 거울의 兩面에 해골(髑髏)과 美人이 나와서 괴이(怪異)함을 보이고 있다. 또 거울 안에 고단과 봉저가 자유롭게 넘나들기도 하고 또 절름발이 도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宿魂鏡』의 구성과 서로 다르다.

특히 판이하게 다른 점은 「홍루몽의 일절」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宿魂鏡』의 「幽居」와 같은 세계가 전혀 형성되어있지 않다. 게다가 만약 『宿魂鏡』의 典拠의 一端이 「홍루몽의 일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透谷의 지적도 있을 법하다. 그 예로서 透谷는 1892년 10월 6일의 자신의 일기에 藤村의 「나쓰쿠사」(夏草)를 읽고 그 감상을 기록하고 있다. 「시마자키 군이 지은 『나쓰쿠사』(夏草)를 읽고 한 여름날 풀이 무성한 숲 속에서 뱀의 눈은 빛나고」(夏草のしげみに蛇の目の光り)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透谷는 물론 藤村도 『宿魂鏡』의 典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소설 『春』(1908년)과 『벚꽃 열매가 익을 무렵』(桜の実の熟する時)(1914~1916년)은 藤村의 소설로써 透谷와 지냈던 明治 20년대의 추억을 묘사한 것이다. 藤村이 『宿魂鏡』을 자신이 번안한 「홍루몽의 일절」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두 소설의 내용 속에 그 典拠에 관해서 한 마디 정도는 남기고 있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앞서서 인용한 「그 病的인 면이 더할 나위 없다」라고 하는 評만이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홍루몽의 일절」의 表題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이 章의 설정(設定)은 완전히 『宿魂鏡』과는 다르다.⁹⁾ 그래서 『宿魂鏡』의 구상에 영향을 준 것이 「홍루몽의 일절」이라고 하는 笹淵氏의 지적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9) 森山重雄(1986.5) 『北村透エロスの水脈』. 戀愛から悲戀. 日本圖書センター. p.265.

第五: 『忌衣物語』, 謡曲「昭君」과 「富士山」, 『古鏡記』와의 비교

정신 내면의 깊숙한 곳(精神の内奥)에 숨겨져 있는 이상한 움직임(不思議な動き)을 거울(鏡)에 비유하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찍이 모리야마 시게오(森山重雄) 씨의 훌륭한 연구가 있다.¹⁰⁾ 森山氏の 견해에 논자의 견해를 덧붙여서 논을 전개해 보기로 하겠다.

中国에서는 『장사』(壯士)의 응제왕편(応帝王編)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높은 덕을 갖춘 사람이 마음을 베푸는 것은 거울과 같다」(至人の心を用うことは、鏡の若し). 森山氏は 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가 지었다고 전하는 『장옥와 카집』(藏玉和歌集)⁴¹ 『군서유종』(群書類從) 와카(和歌) 속에 있는 『미고로모 이야기』(忌衣物語)의 한 문장을 소개하고 있다.

옛날에 남녀가 부득이 헤어질 때 거울에 서로의 모습을 비추어 이 거울을 땅속에 묻어버린다. 그 곳에서 황매화나무(山吹)가 자라났다고 운운하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거세 미고로모 이야기(巨細忌衣物語)에 실려 있다.

옛날 야마토국(大和国)의 나라 들판(奈良原)에 사는 어느 남자가 야마시로국(山城国)의 이데(井手)라는 마을에 사는 여자를 만나러 다녔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깊었으나 양가 부모는 이를 야단쳤다. 이리하여 비로소 남녀가 말하기를 뜻은 비록 깊고 간절하다 할지라도 서로 만날 수 없다. 이리하여 거울을 꺼내어 서로의 모습을 비추고서는 만약 다시 만날 때는 이 거울을 파서 꺼내자고 하면서 울타리 밑에 묻어둔다. 後年 봄에 이곳에서 황매화나무(款冬)가 자라났다. 남자는 이를 가없이 여겨 늘 이곳에서 홀로 한탄했다.

むかし男女あかずして別れ侍りける時、鏡に面影を互にうつして此の鏡をうづみ畢んぬ。其所より山吹生ひ出でけると云云。巨細忌衣にあり。
昔大和国奈良原といふ所にある男、山城国井手の里に住む女にかよひけり。
互のころろざし不淺して、たがひの親しかりて、初て彼の男女いひけるは、
志雖深切今よりは会事不可叶といひて、鏡を取り出でて互に面影をうつして、若し再び会ふ事あらむ時は、此の鏡をほり出すべしとて、
籬の下にうづむ(みぬイ)。後の年の春此所より 冬生ひ出でたり。

10) 森山重雄의 前掲書. p.261.

男あはれにおもひて、不斷此所に独すみて歎きける。

(원문 인용은 『新校羣書類從』 제290 『藏玉和歌集』 内外書籍 株式会社に 의한다)

『미고로모 이야기』(忌衣物語)는 지금은 흩어져 없어진(散逸) 이야기로서 그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宿魂鏡』과 통한다. 즉 남녀가 어쩔 수 없이 이별할 때 「거울」에 서로의 모습을 비추는 행위. 또 둘의 사랑이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사랑인 점. 그리고 둘은 만날 수가 없어서 「거울」을 꺼내 모습을 비추는 행위이다. 게다가 남자가 혼자 살면서 한탄해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宿魂鏡』과 다른 내용은 「거울」을 묻기도 하고 꺼내기도 하는 행위와 거기서 황매화 나무(山吹)가 피어난다는 점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파내서 닦고는 다시 묻는다. 그 해 가을에 또 그곳에서 무궁화 꽃(槿花)이 피었다. 그때 이 남자는 다른 마음이 생겨서 그 여자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宿魂鏡』과 달리 남녀의 사랑에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다. 『宿魂鏡』의 경우 두 남녀는 거의 같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情死의 형식으로 스토리는 끝을 맺는다

요곡 「소군」(昭君)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한조(漢朝)의 원제(元帝)와 호국(胡国)의 호한사단간(呼韓邪單干) 사이에 화평을 맺게 된다. 그때 漢은 美人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다. 화공(画工)에게 여러 궁녀의 초상을 그리게 해서 그 그림 중 미모가 뒤떨어지는 소군이 발탁된다. 실제 소군은 절세 미인이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을 흘트려 못나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運나쁘게 선택되어 버렸다.

소군은 유품으로 버드나무(柳)를 심어둔다. 부모는 버드나무의 한 쪽 가지가 말라있는 것을 보고 슬퍼한다. 그래서 버드나무를 「거울」에 비춰 직접 소군의 모습을 보려고 시도해 본다. 그러자 죽은 소군과 한사장(韓邪將)의 영혼이 나타난다. 한사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겨 떠나가고 소군의 모습만이 남게 된다. 이것이 謡曲 「소군」의 대략 줄거리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버드나무를 「거울」에 비춰 소군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행위의 典拠를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 도엽(桃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선녀(仙女)와 부부(夫婦)의

인연(因緣)을 맺었으며 둘의 사랑 또한 깊었다. 선녀가 죽고 없어진 뒤 복숭아 잎사귀(桃の葉)를 거울(鏡)에 비추자 바로 선녀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이 버드나무도 마치 소군(昭君)의 모습이구나, 자 이제는 거울에 비춰 그 모습을 봐야지.

昔桃葉といひし人、仙女と契り浅からざりしに、仙女空しくなりて後、桃の葉を鏡に映せば、すなはちの仙女の姿見えけるとなり。この柳もさながら昭君の姿、いざさせ給へ鏡に映して 影を見ん。

(요곡 「소군」의 본문 인용은 『古典文学全集』 小学館에 의한다)

선녀가 「거울」(鏡)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연인에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거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비친다」(鏡には、恋しき人の映るなり). 이 같이 「거울」이 보여주는 괴이성(怪異性)은 『宿魂鏡』의 경우와 비슷하다.

요곡 「후지산」(富士山)에도 「유품인 거울」(形見の鏡)이 나온다.

實로 옛날 옛적에 일어난 일이다. 피꼬리(鶯)가 몸을 바꾸어 少女가 되었다. 그때 황제(帝)가 그녀를 皇女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하늘나라(天)로 올라가면서 유품인 거울(形見の鏡)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약(不死藥)을 놓아두었다. 뒷날 후지산(富士山)의 꼭대기에서 그 약을 태웠다. 그 후부터 후지산에서 연기(烟)가 솟아났다

實に／＼さる事ありなり。昔鶯のかひご化して少女となりしを。

時の帝皇女に召されしに。時至りけるか天に上りひし時。

形見の鏡に不死藥を添へて置き給ひしを。後日に富士の蓬萊嶽にして。

其藥を焼きしより富士の烟は立ちしなり。

(본문 인용은 『요곡250번집』 赤尾照文堂에 의한다).

후지산이 神仙이 사는 仙境이라는 것. 게다가 「선녀」가 임금과 헤어질 때 「유품인 거울」을 남겨둔다는 것. 이것은 『宿魂鏡』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오조소설위보(五朝小説魏普)의 『고경기』(古鏡記)가 있다. 여기에서 요괴(妖怪)를 비추어 퇴치(退治)하는 「고경」(古鏡)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소설은 왕도(王度)가 수나라(隋)의 기사(奇士)인 후생(候生)으로부터 받은 「고경」에 얽힌 사연과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공인 적(勳)은 「고경」을 지니고 각지를 배회(徘徊)하면서 「고경」의 마력(魔力)을 빌려 요귀를 쫓

아낸다. 그 요괴에는 앵무새(鸚鵡) 이무기(大蛇) 여우(狐) 거북이(龜) 원숭이(猿) 물고기(魚) 수탉(雄鳥) 곰(熊) 쥐(鼠) 도마뱀붙이(守宮) 등이 등장한다.

꿈에 「고경」이 나타나서 빨리 장안(長安)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적(勳)이 돌아갔을 때는 대업(大業) 13년 7월 15일이다. 상자 안에서 슬픈 소리가 난다. 점차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싶더니 곧 조용해진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경」이 보이 않는다. 이것으로 이 소설은 끝난다.

『宿魂鏡』에서 「幻鏡」이 「古鏡」으로도 불려진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 『고경기』(古鏡記)의 「古鏡」이 그 전거(典拋)의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古鏡記』의 「古鏡」은 戀愛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이 『宿魂鏡』와 큰 차이점이다

第六: 「東海道四谷怪談」 「国性爺合戦」 等과의 비교

스와 하루오(諏訪春雄)씨의 「거울—이계로의 通路—」(鏡—異界への通路—)¹¹⁾라고 하는 연구 논문이 있다. 이것은 日本 近世作品을 「거울」(鏡)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작품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쓰루야난보쿠(鶴屋南北)의 「동해도사곡괴담」(東海道四谷怪談)의 第二幕雜司ヶ谷四谷町の場을 살펴보자.

여기에 나오는 「거울」은 毒藥을 먹고 추악(醜惡)하게 변모해 가는 오이와(お岩)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오이와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

아! 내가 입고 있는 옷 색깔. 머리모양. 이 추한 얼굴이 정말 나의 얼굴인가. 나의 얼굴이 이처럼 악녀(惡女)의 얼굴로 되었던 말인가. 아! 이게 나인가. 내 본래의 얼굴인가

ヤ、着類の色やい 頭の様子。コリヤコいほんまに、わしが面が
このやうな、悪女の顔になんてまあ、コリヤわしかいの／＼、
わたしがほんまに顔かいなう。

(본문인용은 『新潮 日本古典集成』에 의한다).

11) 諏訪春雄(1984.8) 「鏡—異界への通路—」, 文學.

지카마쓰 한지(近松半二)와 다케모토 사부로베(竹本三郎兵衛)가 합작으로 만든 인형극 조루리(人形浄瑠璃) 「천축덕병위향경」(天竺徳兵衛郷鏡)이 있다. 천축덕병위는 조선국(朝鮮国)의 신목회관(臣木会官)의 아들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두꺼비의 妖術로 일본국을 뒤집어서 亡国의 恨을 풀려고 한다. 그러나 신기회관은 復讐를 계획하는 도중에 죽게 된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아들을 향해서 도깨비의 선술(仙術)을 행할 때에는 명경(名鏡)과 명검(名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그 「거울」은 「몸(体)을 감추게 하고는 모습(姿)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깊은 의미(極意)를 살펴보면, 지금 한 개의 명검(名劍)에 이 거울을 합체(合体)하지 않으면 좀처럼 그 마술을 행할 수 없다」라고 들려준다.

그리고 『본조괴담고사』(本朝怪談故事)(2권 제25)의 「마쓰우리는 거울 궁」(松浦ハ鏡ノ宮)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서는 「거울」이 「사경」(死鏡)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끝으로 영혼화(靈魂化)해서 붉은 거울(赤鏡)로 된다. 이를 보는 사람은 죽는다」(終ニ靈魂化シテ赤キ鏡トナル。見ル者多ク死ス。).

그리고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시대조루리(時代浄瑠璃) 「국성야합전」(国性爺合戦) 3단에 나오는 감휘관장(甘輝館場)을 보면 여기에서 금상녀(錦祥女)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성 밖에 찾아온 노일관(老一官)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카마쓰의 세화조루리(世話浄瑠璃) 「여인을 죽이는 기름지옥」(女殺油地獄)의 하권(下之卷口)에 빗으로 머리를 빗는 장(髮梳きの場)이 있다. 여기에서는 여주인공 오키치(お吉)가 요베(与兵衛)에게 살해되기 전에 「거울」을 꺼내서 딸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다. 그리고 다키자와 바킨(滝沢馬琴)의 독본 「춘설궁장월」(椿説弓張月)의 제38회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충신 모국정(毛国鼎)과 정숙한 국왕의 염부인(廉夫人)이 간통(姦通)하고 있는 모습이 환술(幻術)로 「거울」에 비추어져 나타난다.

모국정은 진학(真鶴)에게 술잔을 쥐게 하고, 염부인과 술판을 벌리면서(酒もり) 논다. 술잔을 돌려가며 몹시 취하게 된 염부인은 자미센(蛇味線)을 집어 쾀다.(毛国鼎は真鶴に酌を執らし、廉夫人と酒もり遊び、盃もしば／＼めぐりて、いたく酔ぬと見えたるに、廉夫人は蛇味線をとつて攪持し、)

以上이 스와 하루오(諏訪春雄) 씨가 연구한 줄거리이다. 「거울—이계로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上記의 작품에서는 「거울」의 괴이성(怪異性)을 볼 수 있다. 「거울」이 인간의 몸을 숨기고 모습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 또 「거울」이 은신(隱身)·변신(變身)이라는 현상에 의해 이계(異界)로 가는 통로(通路)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울」을 보는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 이러한 괴이성(怪異性)은 『宿魂鏡』의 「환경의 조화」(幻鏡の土業)와 언뜻 비슷한 것처럼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기술한 『혼조괴담고서』(本朝怪談古書)중에서 권 제2의 제25에 수록되어져 있는 「족병신경」(足柄神鏡)을 주목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수록 되어 있다.

상주족병(相州足柄: 相模國의 판이름)의 명신(明神)은 거울을 가지고 제(祭)를 지낸다. 오랜 옛날 사냥꾼(狩人)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 그녀가 병에 걸려 죽기 직전 거울 한 개를 남편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내가 죽은 뒤에도 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거울을 보세요.

남편은 마음이 몹시 슬프고 아파(悲傷)서 그 거울을 보니 갑자기 죽은 아내의 모습이 거울 속에 나타난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단 말이 없을 뿐이다. 너무나 이상한 거울이라고 여겨서 그 거울을 神으로 모신다. 그 모습을 보니 믿음(義)을 가지고 서로 보는 거울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다. 지금은 사가미(相模)에서 만든다. 『대화본기』(大和本紀)에 실려 있다.

相州足柄ノ明神ハ鏡ヲ以テ祭レリ。往昔、狩人(ニ)寵妻アリ。病ヲ得テ死セントス。時ニ一ツノ鏡ヲ以テ夫ニ授テ曰ク、「若シ我レ死テ後、我ヲ戀(シ)ク思ヒ給フ心アラバ、鏡ヲ見給へ」トテ殘シ与ヘテ死ス。

夫、甚(ダ)悲傷シテ彼鏡ヲ見レバ、忽チ亡妻ノ姿鏡ニ現ゼリ。平生ノ児ノゴトシ。只、言語無キノミ。最(モ)不思議ノ鏡也トテ、其鏡ヲ祭リテ神トス。姿ヲ見ルト云フ義ニテ相見ト号スト云ヘリ。今ハ相模ニ作ルト、『大和本紀』ニ見ヘタリ。

(본문인용은 『혼조괴담고서』(本朝怪談故事) 다카하시 모리나리(高橋衛校) 註에 의한다.)

죽은 아내(亡妻)의 유품인 「거울」(鏡)을 바라다보면 죽은 아내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은 아내는 말이 없다는 점. 게다가 이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구상은 『宿魂鏡』과 비슷하다. 즉 「거울」의 괴이성과 芳三를 찾아온 弓子の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하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여러 작품에 나오는 「거울」(鏡)의 세계는 『宿魂鏡』처럼 「幽居」와 「정신주의적 연애관」을 共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에서 서

술한 여러 작품보다도 『八犬伝』의 세계가 『宿魂鏡』의 典拠에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結論: 『宿魂鏡』와 透谷 文学 世界

다음으로 『八犬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宿魂鏡』의 世界가 透谷의 文学世界 形成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다.

透谷가 해석한 馬琴의 『八犬伝』은 「伏姬의 純潔」을 근거로 하는 에세이 「처녀의 순결을 논하다」에 집약되어져 있다. 透谷는 1887년 8월 18일 이시자카 미나(石坂ミナ) 앞으로 보낸 書簡에서 幼少年時節 자신이 체험한 독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그 시절 내(生)가 가장 즐겨 읽었던 소설은 남공삼대기(楠公三代記), 한초군담(漢楚軍談), 삼국지(三國誌) 등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들 소설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고 … (중략)… 내(生)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歴史小説을 즐긴다든지 英雄豪傑의 기풍(氣風)을 흠모(欽慕)해서 자나 깨나 그것만을 계속 염두에 두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透谷가 『八犬伝』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幼少年期 무렵으로 추정된다.¹²⁾ 또 透谷의 연보에 의하면 여러 군데에서 馬琴에 대한 기록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로서 『八犬伝』의 영문 번역을 돕고(1990년 4월), 「상단단(1)」(想段々)(1892년 3월)의 「평화주의와 『八犬伝』」에서 「평화주의를 품고 있는 서양인인 어떤 사람이 전부터 나와 함께 『八犬伝』을 읽다」라고 언급(言及)하고 있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透谷에게 있어서 『八犬伝』은 유소년기부터 시작하여 거의 전 생애에 걸치는 기간동안 친숙해져 온 「역사소설」이다. 透谷의 『八犬伝』에 대한 취향은 유소년기에는 「영웅호걸」을 상징하는 팔견사(八犬士)로 상징되는 행적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된다. 그 후 청년기가 되어 透谷는 「고상한 연애」를 대표하는 「후세히메의 순결」 쪽으로 그 취향을 바꾸어갔다.

12) 關良一(1958.6). 「北村透谷と和漢文學」. 「明治大正文學研究」第二十四號.

결국 透谷은 「청정무구」(淸淨無垢)한 후세히메가 상징하는 「고상한 연애」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결혼생활(1888년 11월)로 인해 아내인 미나(美那)와 정신적인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한다. 이 무렵 결혼 전 미나와 사귀던 시절 두 사람 사이에 싹뻗던 순수한 정신적인 차원의 연애를 다시 되찾고자 한다. 그러한 의도에서 伏姬가 보여준 「고상한 연애」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연애지상주의(戀愛至上主義)를 愛唱하는 透谷의 眞面目을 엿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자면 처녀작 「楚囚의 詩」(1889년 4월)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애(愛)와 연(戀)에는 허물이 있지만 우리 두 사람의 愛는 정신에 있다」(愛といひ恋といふには科あれど、/ 吾等双個の愛は精神にあり)(제4)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극히 정신적인 연애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열렬한 연애를 통해 막 결혼한 透谷 자신과 미나와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透谷은 결혼생활이 가져다주는 절망감을 그 후 「厭世詩家와 女性」(1892년 2월)에서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무릇 시인은 고루(頑物)한 성격의 소유자다. …(중략)… 혼인(婚姻)으로 인해 實世界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가 理想으로 하는 소천지(小天地)는 더욱 더 협착(狹窄)해진다. 처음에는 理想을 지킬 수 있는 아성(牙城)으로서 연애를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꺼림칙한 사랑의 속박(愛縛)에 얽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夫れ詩人は頑物なり…(중략)… 婚姻によりて實世界に擒せられたるが為にわが理想の小天地は益／＼狹窄なるが如きを覚えて、最初には理想の牙城として恋愛したる者が、後には忌はしき愛縛となりて我身を抑制するが如く感ずるなり。

여기에서 透谷은 厭世시인(厭世詩人)과 여성과의 관계를 논한다. 연애와 애박(愛縛)이 분열됨으로써 결혼생활이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고 「厭世詩家와 女性」에는 아직 결혼생활의 절망감을 어떻게 헤쳐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透谷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볼 수 없다. 결혼 전에 느꼈던 연애의 감정을 되찾으려고 하는 透谷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후 『宿魂鏡』(1893년 1월)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난다. 이것은 芳三가 「벽위」(壁上)를 향해서 「幻鏡」을 던짐으로써 비로소 실현된다. 芳三가 「벽위」를 향해서 「幻鏡」을 던지자 「기이한 모습을 한 괴물」(異態の怪物)이 나타나서 弓子の 환영(幻影)

과 함께 괴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芳三의 행위는 魂을 상징하는 거울이 지니고 있는 환요성(幻妖性)을 「벽」(壁)에까지 전이(轉移)시킨 결과가 된다.

여기에 「幻鏡」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정신주의적 연애」이다. 결혼생활로부터 야기된 연애에 대한 절망적인 환멸(絶望的幻滅), 그리고 파경(破鏡)에 이르지 않을까하는 우려(憂慮). 이 같은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극복하려는 透谷의 간절한 바램(願望)이 芳三의 행위 속에 숨겨져 있다. 즉 透谷가 『宿魂鏡』을 집필한 의도는 점점 상실(喪失)해 가는 「연애 기억의 재생산」(恋愛記憶の再生産)¹³⁾ 혹은 「연애의 새로운 발견」(戀愛の新しい発見)¹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以上の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 할 수 있다.

「도야마 산속 동굴」 즉 「幻界」에서 일어난 伏姬와 八房와의 「고상한 연애」(高尚なる恋愛). 이것은 「伏姬의 鏡像」을 비추고 있는 「고인 물」(止水)·「연못」(池)의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宿魂鏡』의 「幻鏡」의 세계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주인공 芳三은 이 「幻鏡」을 「벽위」(壁上)를 향해 던짐으로서 「기이한 괴물」과 弓子の 幻影이 출현하게끔 한다. 거기에서는 「결혼」=「실세계」(実世界)에 의해 상실되어 가는 「연애」=「상세계」(想世界)를 재생하려고 하는 透谷의 면밀한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결혼 전 미나와의 정열적인 연애는 그 후 결혼생활에서 비롯된 절망감으로 인해서 그 熱氣는 점점 식어버리게 된다. 透谷는 이 같은 파국(破局)을 『八犬伝』으로부터 인식된 「高尚한 恋愛」로 극복하려고 한다.

【참고문헌】

- 勝本清一郎. 「透谷全集」解題. 岩波書店
 島崎藤村(1912.10) 「北村透谷の短き一生」. 文學世界.
 田山花袋(1909.7) 『明治名作解題』. 「小説作法」. 博文館 『犬夷評判記』
 笹淵友一(1955.5) 一透谷の「宿魂鏡」について一. 文學.
 平岡敏夫(1976.11) 『明治文學史の周辺』. 有精堂.
 平岡敏夫(1982.5) 『北村透谷研究』. 有精堂.
 佐藤善也. 『日本近代文學大系9』注釋.
 小倉眞理子(1985.9) 「稿本近代文學」第8集. 「蓬萊曲」-「慈航湖」をめぐる-

13) 平岡敏夫(1967.6). 『北村透谷研究』. 「厭世詩家と女性」. p.165.

14) 中山和子(1966.10·1967.3). 「北村透谷」(明治大學, 第16號 第17號, 文學研究.

- 佐藤毅(1983.11) 「馬琴から透谷へ」-その理想實現の苦惱-. 國學院雜誌.
野間宏(1985.2) 「『里見八犬傳』を透して」. 文學界.
高田衛(1988.4) 『八犬傳の世界』. 中央新書
森山重雄(1986.5) 『北村透谷エロスの水脈』
平岡敏夫. 『北村透谷研究 第三』, 「透谷の『幻界』」. 有精堂.
橋詰靜子(1986.10) 『透谷詩考』, 「『蓬萊曲』前論」. 國文社
關良一. 「北村透谷と和漢文學」. 「明治大正文學研究」第二十四號.
前田愛.(1972.8) 「馬琴と透谷」-「俠」をめぐる-. 「國文學」解釋と教材の 研究. 紅樓夢
森山重雄(1986.5) 『北村透谷エロスの水脈』, 「戀愛から悲戀へ」日本圖書センター
諏訪春雄(1984.8) 「鏡-異界への通路-」. 文學.
笹淵友一(1950.7) 『北村透谷』. 福音書店

논문 투고 일자 : 2017. 08. 29.

논문 심사 일자 : 2017.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17. 10. 27.

 <要旨>

 『宿魂鏡』論
 - 「幻鏡」の典拠を中心に -

李滄煥

北村透谷の短篇小説『宿魂鏡』（明治26年1月）は男・女主人公の悲恋物語である。地方出身の青年である山名芳三は立身出世の夢を抱いて上京して大学で政治学を学ぶ。彼は男爵の令嬢弓子と相思相愛の間柄となる。ところが、ある日、男爵の留守中夫人からの「断り」が出てから芳三は邸を離れようとする。弓子は芳三とやむを得ず別れる際に自分の魂魄が打ち込まれている「幻鏡」を「別離の時の形見の品」として芳三に与える。芳三は都会と隔絶された「幽居」で隠遁生活を営んでいる。

弓子の幽霊が「幽居」にやってくる。「幻鏡」を背景として二人の神秘的な恋愛が展開される。ついに二人は「幻鏡」の魔力によって共にまほまほ時刻に死んでしまう。怪談要素が加味された奇怪な作品である。『宿魂鏡』のモチーフもこの小説の題名のとおり「魂鏡」即ち「幻鏡」にある。それで『宿魂鏡』の不思議な謎を解く手掛かりとしてその典拠の一つになると思われる、透谷の『八犬伝』受容の問題に触れることにする。その裏付けとしては、透谷の「八犬伝」への読みが「処女の純潔を論ず」、「心池蓮」（明治26年3月）に一貫しているからである。本考は『宿魂鏡』の製作動機に『八犬伝』からの影響関係を明らかにすることから始まる。

A Study on “The Mirror Containing A Soul”

-with a Focus on the Source of a “The Mysterious Magic Mirror”-

Lee, Jong-Hwan

Kitamura Tokoku's short story titled “The Mirror Containing a Soul” recounts a sad, sorrowful love stor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protagonist. Previous studies on his short story reveal that its publication was met with many negative criticisms including “this is a mysterious novel” and “it reflects Tokoku's morbid aspects.” These negative criticisms stem from the fact that the story is bizarre and mysterious. That is, the writer failed to help readers clearly understand the composition and topic of the story, which is centered around sex between the two main characters via “the mysterious magic mirror.” their love token. As a clue to reveal its bizarre nature, the investigator addressed the issue of Tokoku's acceptance of “Eight Samurais Named Do,” one of his short stories' sources. Hints was found in his comments about “Eight Samurais Named Dog” and in his essays “Discussing the Chastity of a Girl” and “The Lotus Flower of the Mind Pond.”